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1일 화요일 (음 3월 16일)

제20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네이버, 지역언론 기사도 보여줘야”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역언론 기사 게재
민평당 정동영 의원, 상생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6일 “지방분권 시대 지역언론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언론은 기사 노출 감소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지역언

론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언론의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털에서 제공한 기사를 본 이용자의 성별이나 연령, 시간대별 조회 수 등의 이용행태 통계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기자들이 이

용자 특성에 맞는 양질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 사람이면 전북 지역 언론의 기사를, 부산 사람이면 부산지역 언론의 기사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역언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 발의에는 정동영, 김경진, 김광수, 박지원, 윤영일, 장병원, 황주홍 의원(이상 민주평화당), 강창일, 노용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장정숙, 주승용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기자협회 소속 10개 지역협회장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성장동력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북도의 성장동력사업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아시아 문화심장터 보존 체계화

전주시,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 151만6000㎡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관리방안 마련

건축층수 기본 3층까지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등 향후 신축되는 해당지역 건축물 용도 일부 제한

전주시가 천년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전주 구도심 100만평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옛 전주부성터와 주변부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의 옛 전주부성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6000㎡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조선시대 4대문과 전주부성이 있던 전주의 천년 중심지인 역사도심지구는 풍남문과 풍패지(객사), 현재 북일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전라감영 등 풍부한 문화유산과 간직하고 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성곽과 성문, 감영, 옛길 등이 훼손되고 전주한옥마을을 관광객 증가로 인해 무분별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왔으며,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 포럼 등을 거쳐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향후 신축되는 해당지역 건축물의 용도가 일부 제한된다. 또, 건축층수는 기본 3층까지는 기본적으로 허용되며 역사문화자원주변은 한층 강화된 건축층수 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 단, 도로와의 인접도와 대지면적 등을 고려해 일부지역의 건축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축 및 증축이

가능하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과 지형도면 등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해 전주 도심부의 장기적인 비전과 관리방안을 제시해 도심부 재창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전주한옥마을의 활력을 그 주변까지 확산시켜 체계적인 역사문화자원 및 도시경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해당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전주 구도심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활용해 역사도심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색채 등 전반적인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일부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전주시가 천만명이 넘게 찾는 문화관광도시인 만큼 해당 주민들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기자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전북도, 세계노동절 맞아 근로자 가족문화 행사

근로자 사기진작 위해 모범 근로자들에 표창 수여
안치환·해바라기·오로라 등 유명 가수 공연

전북도는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지난 30일 오후 7시부터, 전북도청 3층공연장에서 노사민정 관계자와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을 비롯한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근로자 가족문화 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의회의장, 국회의원, 도 교육감,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전북경영자총협회장 등의 주요 내빈이 참석, 지역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있는 주체로서 노동의 가치와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노내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한층 더 성숙된 노사관계로 발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노사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2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모두 50명이 포상했다.
근로자 가족문화 행사로 JT전주방송에서 ‘노동자 가족문화 한마당’ 행사를 공개 방송으로 진행, 안치환, 해바라기, 민혜경, 오로라, 박진도, 조은새, 소명, 나상도 등 유명 가수 공연으로 참석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줬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선진노사문화 정착과 지역 근로자의 문화 향유의 장 마련을 위해 전북도가 후원하고 한국노총전북본부(의장 안재성)가 주관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신속 추진 지시

12면 - 신 남북시대... 예술단 공연, 정례화되나

여름생이나 가을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전남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경관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